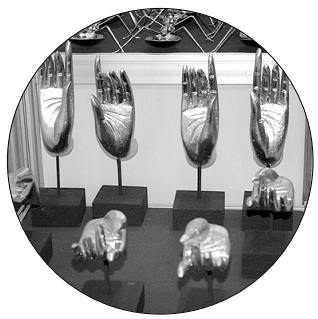


'포르니' -폭포수공기정화기



유기농 녹차담뽀



태국관에서 선보인 부처님소모양 물건걸이



친환경 숯·옥 등으로 만든 비단재



어린이 교통안전 손수건

숯침대·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친환경타일

생활 아이디어 '반짝'

여성발명품 박람회 가보니...

여성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에 걸맞게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발명가들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4월 19~22일 코엑스 1층 태평양홀 4실에서 열린 여성발명품 박람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3개월간 실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떡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아이를 편하게 업을 수 있는 포대기, 친환경적 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품이 선보였다.

특허청(청장 전상위)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 www.inventor.or.kr)가 주관하는 '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는 여성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향

상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켜 여성발명인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7년째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구·건설장비관 △식품·건강용품관 △미용·패션잡화관 △생활용품관 △해외관 △여대생 발명관 △발명지원관 등 총 113개 부스에 92개 업체의 여성 발명품들이 전시됐다. 숯을 활용한 침대 소파 의자, 스티폼청소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용품, 소형공기정화기, 발아현미고추장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웰빙 가정용품들이 출품돼 판로를 개척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 해외관은 필리핀 일본 태국 등의 3개국에서 부스를 차렸다. 필리핀여성발명협회, 필리핀발명협회, 태국 중소기업청 등이 공식 참가했다.



동덕여대 디자인연구소에서 선보인 '엄마가 골라주는 우리아이 가구'. 침대는 잠자리이자 놀이공간이고 색상과 숫자, 동물모양을 배울 수 있는 학습터이기도 하다.

박람회 기간에는 제12회 여성발명우수사례 작품 발표회도 열렸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기순환 건조방식을 선택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있다. 50도의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최대 8시간 안에 악취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건조시킨다.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소장 윤숙자)가 선보인 기능성 떡은 실은에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건강에 좋은 기능성 재료와 한약재를 첨가해 먹기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면서 오래 보관되는 특별한 떡이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아이사랑 안전 교육기자재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시각 효과를 꾀했다. 말하는 기자재이기에 아이들의 관심을 보다 오래 끌 수 있다. 거기에 신나는 CM송을 넣어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농촌 환경 보호용 빙용약병 수거함, 국내 최초 합플유두교정기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여성들이 직접 개선해 발명한 상품들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부터 개발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획득까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누구나 발명가 될 수 있어요"

interview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여성들은 발명을 해도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시 기회를 드리고자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박람회 개최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홍보의 기회와 더불어 박람회를 통해 발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성들이 발명하는 것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다"는 한 회장은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찾기 설명대회'와 '발명 창의교실' 등을 국고를 지원받아 무료로 개설했더니 참가 신청자가 몰려 벌써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관심은 많지만 방법을 모르

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실한 불자라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에게 '환희행'이라는 발명을 받기도 한 한 회장은 불교와의 인연을 이렇게 고백한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미션스쿨을 나왔는데도 책 속에서 발견한 불교 속에 은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도행 보살을 만나 큰스님들을 찾아 뵈고 하면서 뱃속까지 불자가 돼버렸죠. 마음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름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영 회장은 "한글계몽운동을 했듯 발명계몽교육을 하고 싶고, 여성발명센터와 여성발명품 상설전시장 등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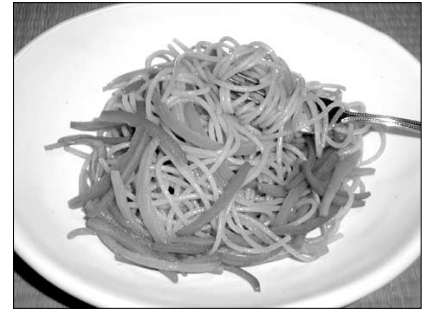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6>

아른 스파게티

지난 가을인 듯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가끔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에 사시는 도반들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날은 충북 진천에 가게 됐습니다. 그저 도반님들과 모여 된장을 담글 콩을 보러 가게 된 것인데, 이곳에서 너무나 신비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도반들과 이른 저녁을 먹고 주변 경치 구경에 나섰는데 주변에 작은 알자가 있다고 해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우선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잠시 참선을 한 후 나와 절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조그맣고 아늑한 알자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곁에 펌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 곁에는 연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연근이 왜 이리 많지요?" 라는 생각이 한 번 먼저보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연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창 우리끼리 토론을 벌이다 그 정체가 너무 궁금해 스님 법기를 청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따뜻한 방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가 궁금해 하던 그것을 한 개 깎아 오셔서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른 냉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른은 쫄깃한 맛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아 넘어간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내 주신 차 역시 아른차였는데,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입 안에 머무는 향이 정말 은은하고 좋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건강식으로 아른을 죽이나 차, 나물로 만들어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스님께 아른을 몇 개 얻어와 이런저런 음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아른을 챙겨 주시며 "외모가 예쁘다고 맛이 좋거나 영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맛있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식품이지만 우리에게 맛과 영양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찌 처음 보는 우리에게 이렇듯 따뜻한 가르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지, 전 산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온 듯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 만드는 법

- <아른 스파게티 재료> 아른 본말차 1작은술, 스파게티면 1봉, 청색피망 1/2개, 빨강피망 1/2개, 죽염 약간, 녹차기름 약간, 흰후추 약간
① 피망은 길이를 4cm로 잘라서 녹차기름에 살짝 볶아준다.
② 아른차는 물과 1:1로 섞어 풀어준다.
③ 스파게티면은 뜨거운 물에 삶은 후 녹차기름에 볶는다.
④ 볶아진 스파게티 면에 만들어 놓은 아른차 물을 넣어 볶아주고 나머지 야채를 넣어 볶아준다.
⑤ 죽염과 후추를 간을 한다.



▶ 다음 주에는 딸기 냉소프와 아른 참쌀케이크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원)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영천 보현산 총효사
경주 마석산 총효문사
죽장 명봉산 무학사
포항 해도동 염불원
사회복지법인 총효자비원

회주 원감 해공 신도일동

경북 영천시 자양면 총효리 660번지 TEL(054)338-8196, 1152/FAX(054)338-6006

지장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총효사

제15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많은 분을 발굴하여 시상 및 지원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 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 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5회 행원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4 columns: Category, Content, Personnel, Prize. Categories include '시상 부문' (Award Category) and '예술포럼' (Art Forum).

- 2. 시상 일: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본인신청서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명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1부

-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접수 마감: 2006년 6월 30일
접수 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5. 수상자 발표: 2006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번, fax 02)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Advertisement for '명당옥(福)방' (Myeongdangok (Blessing) Room). Includes text about creating a '명당' (Myeongdang) and '명당옥(福)방' (Myeongdangok (Blessing) Room) for a ho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